

市,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신규사업 확대

소셜, 마케팅 등 청년 창업지원 확대
30일, '청년 ESG 스타트업 사업' 공모

인천시는 최근 청년창업 붐 확산과 기술창업 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 기술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확대되는 주요 신규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춘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 개선 마케팅 지원과 라이브커머스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청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내 대학과 연계해 인천시 현안문제(원도심 재생·복지·환경 등) 관련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 ▲초기 청년창업 기업가의 지속성장을 위해 2년 간 단계적으로 사업화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 등이다.

현재 '청년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은 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중이며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지원'은 수행기관을 선정 후 소셜벤처 캠프, 벤처콘 대회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시는 이달 30일부터 한달 간 친환경분야 창업 육성을 위한 '청년 환경·사회·지배구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의 환경·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만 39세 이하 대표)을 발굴하고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및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며, 각 사업별 모집공고 등 추진일정은 센터 홈페이지(ceci.creative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수 시 투자창업과장은 "지역 청년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한 뒤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청년 창업지원사업으로 '청년 창업챌린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6개 창업팀에 각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을 했고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으로 29개 예비창업팀에 아이디어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유정희 기자



iH 창립 19주년 기념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다.

iH 제공

인천도시공사, '행복찾음 문화행사' 개최

상호 소통·화합하는 축제의 장 마련

iH(인천도시공사)는 창립 19주년을 맞아 본사가 자리한 남동구 만수6동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찾음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2022 행복찾음 문화행사는 iH와 (사)한국예총 인천시연합회가 협업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회복에 발맞춰 인천시민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모두 16회의 공연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와 접할 수 있도록 발코니 콘서트 등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중에게 친숙한 대중가요,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H는 이번 창립 19주년 기념행사 전부터 i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행복찾음

문화행사를 열어왔다. 지난 5월 12일(랭이부리아파트), 19일(연희헤드림아파트)에 이어 23일 본사 사옥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했고 6월 9일(청학아파트), 10일(관교동 승학어린이 공원), 16일(연수시영아파트), 7월 7일(선학시영아파트), 16일(청라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상반기 총 8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하반기인 9-11월에도 임대아파트, 인천지역 공원 등에서 8회의 행복찾음 문화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이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우 iH 사장은 "2003년 5월 24일 창립 이래 iH가 시민들과 함께 해온지 벌써 19년이 됐다"며 "음악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창립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쁘다. 또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인천시민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는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인천경제청, '스마트 엑스시티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모집

6월 13일까지 신청... 5000만원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테크노파크와 'Smart-X City(인천도시공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를 완성하는 X(혁신 서비스)를 의미하는 미지수를 찾는다는 뜻이 담긴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추진 중인 실증 브릿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인천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검단신도시 스마트도시 리빙랩에서 도출된 과제

를 해결할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해결 과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시민참여 단에서 도출된 과제와 리빙랩 스마트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과제 등 총 11개 과제다. 주요 과제는 스마트 횡단보도,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전기충전 서비스, 스마트 바이크로드, 약취관리 서비스 등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최대 5000만 원의 실증자금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한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실제 설계 반영을 검토하고 있어 조기 상용화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스마트시티 구축 분야 스타트업이며 6월 13일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www.startuppark.kr)로 신청하면 된다.

정운희 인천경제청 스마트시티과장은 "실제 검단신도시 스마트도시 리빙랩에서 도출된 과제를 스타트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통해 시민들과 스타트업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교 기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음악회... 내달 4일 인천문화예술회관서 열려

인천시는 온 가족이 함께 낭만이 있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가족음악회가 6월 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인천시향의 정한결 부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축제와 춤이다'.

여름의 초입, 클래식 축제의 기본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음악회는 보헤미아의 민요와 민속 춤곡이 담겨있는 드보르작의 사육제 서곡으로 시작된다. '빙판 여제' 김연아의 쇼트 프로그램 음

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생상스의 대표작인 교향시 죽음의 무도, '왈츠의 왕'이라 불리는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은 브레슬라우 대학의 명예 박사학위를 감사하며 브람스가 작곡한 대학축전 서곡이다. 당시 학생들의 노래를 인용해 활기찬 선율을 만들어냈으며 오늘날까지 즐겨 연주되고 있다.

이날의 협주곡은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다. 2019년 헝가리에서 열린 다비드 포퍼 국제첼로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라이징 스타, 첼리스트 백승연이 협연한다.



첼리스트 백승연.

인천시 제공

공연은 R석 1만 원, S석 7000원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 032-420-2781. 최태용 기자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1단지 CEO 초청 간담회

입주기업 28개사 애로사항 등 청취

인천항만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천항 물류단지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4일 공사 회의실에서 '아암물류1단지 CEO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IPA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 아암물류1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관찬성 회장, 입주기업 CEO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시설의 환경·안전관리 등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입주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원사업 ▲항만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협업 안전설비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박영재 기자

인천항 아암물류1단지 56만 7328㎡에는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배후단지 물동량 27만 7528TEU 처리, 일자리 1106명 창출, 입주기업 매출액 3454억 원 달성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김종길 부사장은 "배후단지 입주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며 "고객 만족을 위해 입주기업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세심히 파악하고, 배후단지 부가까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PA는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향후 배후단지별로 CEO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2022 휴먼시티 수원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경기신문사는 국내 대표 스포츠 종목인 야구를 통하여 유소년 선수들에게 협동심과 단결력, 자신감을 배양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수원야구 발전에 걸인차 역할을 하고자 '2022 휴먼시티 수원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전국 유소년 야구부 선수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야구 문화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회기간
2022. 05. 28 ~ 29

▶ 일시 및 장소

구분	경기일정	경기장소
연식부	2022.05.28 ~ 29	수원종합운동장 내 어린이야구장

주최/주관

 경기신문사

후원

 수원시
 수원시체육회